

2023. 5. 4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	검 사 지 도 팀 장	김 성 문	02-3706-1520
사진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수 : 3매	담 당 자	이 창 해	02-3706-1522

서울시, 안전관리 규제 제외 대상 ‘스터디카페 화재안전대책’ 추진

- 지난 3월 스터디카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6개소 표본 실태조사 마쳐
- 학원 밀집지역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 선정,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진행
- 영업장의 출입문 화재 및 정전 시에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 권고

-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최근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 중”이라고 4일(목) 밝혔다.
-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가능한 업종으로서 영업형태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「다중이용업소법」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시간대 무인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‘표본 실태조사’를 마치고, ‘화재안전컨설팅’을 실시하고 있다.
- 이번 실태조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울 시내에 영업 중인 스터디카페 26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하였다.

-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△ 스터디카페와 입점해 있는 건물의 화재 발생 이력
△ 소방시설 설치현황 △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△ 심야시간 무인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었다.
- 조사 결과, 표본 실태조사 선정대상 26개소 중 3개소는 조사 기간 중에 폐업하였으며, 나머지 23개소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, 최근 3년간 스터디카페와 입점 건물의 화재 발생은 없었다.
- 또한 영업장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 현황은 △ 소화기 비치 23개소 (100%) △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12개소(52%) △ (간이)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6개소(26%)로 조사되었다.
 - (현지시정) 노후 소화기 교체 1개소,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 비치 위치 개선 5개소, 유도등 시인성 개선 2개소
-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15개소(65%),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은 20개소(87%)로 조사되었고, 스터디카페가 위치한 층은 지하층 5개소(22%), 지상층 18개소(78%)로 분석되었다.
- 실태조사 시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시설·용품에 대한 정기 점검과 화재위험요소 사전 제거, 소방시설 유지·관리 및 피난통로·비상구 확보 등 화재안전컨설팅도 함께 진행하였다.
-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,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계인 부재 등으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

피가 최우선으로 제시됨에 따라 영업장의 화재예방 및 출입구 등 비상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- 따라서, 스테디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원 밀집지역의 무인 운영 스테디카페를 선정하여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유지·관리 강화 및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를 지도하고,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출입문은 화재 및 정전 시에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화재안전컨설팅을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무인 운영 스테디카페의 피난대피로 확보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종 지정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.
-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“시민과의 안전동행’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굴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”며 “특히 스테디카페 관계인분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”라고 전했다.